

변화하는 농촌, 농업속에서의 여성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영 대

1. 머리말

- 최근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미래의 일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던 여성들에게 개방화라는 농업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정책은 영향을 준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지도 대상인 농촌여성들이 개방화추세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농촌, 농업의 변화, 여성의 역할 변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2.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농촌, 농업의 변화

- 국가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여건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영향을 받는다.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농업과 농촌의 변화전망은 다음과 같다.
- 농가의 유형별 분화가 이루어진다. 전업농, 겸업농, 이탈농(재촌 비농업분야 종사) 등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고도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갖는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예 : 2001년에 15만명의 후계자 출신농가, 2만명의 전업농 출신농가, 기타 선진농가)는 충분한 생산기반(예 : 3~9천평으로 대 구획화되고 완전경지정리된 5~20정보의 규모를 갖고 완전한 시설을 갖춘 농가)과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겸업농과 농촌에 살고 있으나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구로 유형화 된다(1993년 전업농가 62%, 1종겸업농가 15%, 2종겸업농가 23%임)

- 농업의 비중이 축소된다.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되고 자급률이 떨어짐에 따라 농업성장이 저조하며 농림수산업의 비중도 1992년의 7.6%에서 2001년에 2.8%로 낮아진다.
- 그에 따라 농가도 감소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감소한다. 이제까지 농가와 농업종사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 앞으로 감소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농가호수는 1993년 159만호에서 2001년 50~60만 호로 감소되리라 예상되고, 농가인구는 1993년 541만명에서 2001년 242만명으로 반이상이 감소(전체인구중 비율은 5.1%로 감소)하고 농업취업인구도 1992년 303만명에서 2001년 195만명으로 감소한다.(비율로는 16%에서 7.9%로 감소) 반면 농촌인구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1992년의 1,063만명(24.3%)에서 2001년에 858만명(18%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도농통합 등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농촌에서도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개발로 인하여 농촌에서도 도시의 편리한 생활 못지않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누릴 것이다. 도로포장율이 100%, 상수도 보급율이 90%가 되고 병원등의 의료시설, 세탁기 등 생활편익시설, 자녀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농촌에서 취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게 된다(현재의 농촌주거 환경수준은 농촌부엌개량 37%, 목욕실 29%, 변소개량 25% 수준에 불과함)
-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발달하고 농촌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고 농촌 기업이 발달하고 공장 설립을 많이 하여 농외소득기반이 확대된다. 그에 따라 겸업농의 농외소득이 2배가 된다.
- 농촌의 고령인구가 증가한다. 농촌인구중 60세이상 인구가 1980년 8.6%에서 1985년 10.5%, 1990년 13.5%로 높아졌다. 65세이상은 9%이고 80세이상이 0.9%이며 반면 도시는 60세이상이 5.6%, 80세이상이 0.5%에 불과하다(1990). 앞으로 농촌노인 인구도 일본의 1990년과 같은 수준인 60세이상이 22.3%, 65세이상이 15.7%수준으로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3. 여성의 역할 변화

- 농촌여성은 1990년에 552만명으로 읍지역에 180만명, 면지역에 37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430만명으로 예상되고, 농가여성은 1993년 280만명에서 2001년 121만명, 농업종사여성은 1990년의 130만명에서 2001년에는 97만명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 농촌여성의 역할이 타 분야의 여성들과 다를 수 있다. 농촌여성의 대부분이 자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과 농업의 독특한 특성이 농촌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이미 여성들의 역할에 영향을 준 바 있으나 국제화시대에 농업과 농촌이 더욱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여성의 역할은 다양화해지고 중요해져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여성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 앞으로의 농촌여성의 역할은 농가 유형별로 달라지리라 예상된다. 농업농가의 여성, 겸업농가의 여성, 비농가의 여성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가사나 지역사회 활동은 공통이다.
- 먼저 전업농가 여성의 경우 농업참여 정도가 높아진다. 농가의 농업노동 투하량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967년 28%, 1970년의 30%, 1975년 33%, 1983년 42.3%, 1992년 48.1%로 높아졌다. 1992년의 경우 가족노동의 45.7%, 품앗이의 64.8%가 여성이다. 절대적인 시간수는 1985년 864시간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감소하였다. 가족노동과 품앗이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반면 고용노동은 낮아진다. 농가여성의 노동 투하량이 높은 편이나 앞으로 일본과 같이 6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 1986년 160만명이던 농업종사 여성이 1992년 13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9만명, 60대 이상이 38만명으로 이 둘을 합하여 87만명이 50대 이상으로 노령화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29세 이하는 4만명, 30대는 19만명에 불과하다.

- 학력별로는 86%가 국졸이하이며, 76만명이 부업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주일에 36~4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다른 분야는 54시간 이상 일함) 처녀농군도 4만 5천명이나 된다. 농업종사 여성중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92%가 되고 있었다.
- 농업참여 여성을 유형화하면 농업경영자로서의 여성(33만명), 농업보조자로서의 여성(96만명), 농업부문임금 봉급근로자(2만명)가 있다. 전업농이 가족농으로서 고임금 시대에 맞추어서 여성의 농업참여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왕 농사를 짓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기계도 잘 다루며 농사도 잘 짓는 프로농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종사여성의 73%가 무급가족 종사자이다.
- 겸업농가나 비농가의 농외취업활동이 증대된다. 농촌에서 약 60여만명이 비농업분야 취업여성이다. 생산직이 19만명, 서비스직이 13만명, 판매직이 12만명, 사무 및 관리직이 11만명 등이다. 그 중에서 임금 및 봉급근로자는 43만명이다. 앞으로 임금 및 봉급 근로자가 많이 증가되어야 하며 농외취업을 원하는 여성 모두가 취업을 하여야 하겠다. 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여성의 53%가 취업을 원하나 실제 종사는 9%에 불과하다 라고 되어 있다. 농외소득 활동으로는 자영사업활동(토속식품 등), 농외취업, 농촌임가공 사업(기업과 농가 연계, 하청)이 있다.
- 농촌에서 현재 남아있는 여성중에서 농외소득에 종사 할 수 있는 여성은 농업의 기계화와 병행하여 여유가 생긴 노동력,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면서도 농촌을 떠나지 못하는 층(노년층),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년의 여성층, 농촌의 젊은 여성주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농촌여성들에 대한 소득활동 희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파일로 정리되어야 한다.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가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농가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농가여성들의 소득증대 활동이 권장될 만하다. 농가주부들은 농가의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극히 어려운 농가의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이 높아 각종 소득증대 활동에 관심이 많다. 더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인력부족난에 따라 농가주부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현재도 62%로 비농가의 44%에 비하여 높지만)

- 농가여성노동력의 특징은 가사와 자가 농업노동을 병행하고 있어 고용주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력이다. 이들의 소득은 가계의 보완적 소득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동력이 가치이하로 고용이 가능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다고 업주측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 농촌여성들이 하고 있는 자영점업의 종류에는 영세상점, 정미소, 방아간 정도로 큰 소득증대는 어려운 편이며, 농업노임에 의한 기회도 농번기의 1달미만에 그치고 있어 피고용되어 받는 급료가 가장 확실한 소득원이다. 피고용 분야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식당종업원, 청소원, 조리사 등을 들 수 있다.
- 농촌여성의 가사와 관련한 역할은 축소된다. 먼저 가정의 자녀출산(재생산)과 사회화, 양육면에서는 출산 자녀수가 감소하여 부담이 덜어진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45세 이상은 4명이상이 가장 많았으나 40~44세는 3명이 가장 많으며 그이하 연령층에서는 2명이 가장 많았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식부엌개량, 온수목욕실 설치, 변소개량(수세식 화장실), 상수도 등의 설치에 따라 여성의 가사부담이 경감된다. 농가의 가족수도 감소되어 1988년 4명에서 1993년 3~4명으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농촌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농번기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킨다. 가사노동과 다른 경제활동과의 2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탁기를 더욱 많이 보급하고 식사준비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농번기 일꾼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업여성 농민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되겠다. 도시락을 준비하여 일을 다니도록 한다. 가족간 가사분담을 하도록 한다.
-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책상을 갖추어 주는 등 물리적 환경을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공부만 하라는 식이 아닌 진정한 관심을 두는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자녀를 부모가 데리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우수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자녀교육에 있어서 당당한 자세로 자녀교육에 임하여 자녀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한다. 1994년은 세계 가정의 해이다.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 중요해지며 가족간의 건전한 관계와 건전한 가정이 중요하다. 건전한 가정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정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여 좋은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1993년의 여가 조사 결과 텔레비전 시청이 68%, 대화가 4%에 불과함)
- 가정의 사회정서적 기능, 휴식 및 오락의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가 복잡할 수록 가정의 정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여 진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를 즐기게 하며 그 한 방안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보전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전통문화는 지금 보전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사라지는 경우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농촌가정의 보호기능에서 노인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농촌노인 보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 농촌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진다. 농촌 환경오염을 줄이고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고(예 : 90년의 경우 1인당 연간 10.2 kg의 세제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킴)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돌보기를 하고, 농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다.
- 가정의 소비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건전소비 및 알뜰살림을 할 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 먹기와 국산품 소비를 한다.

4.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주는 시사점

-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변화에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적응을 하여야 한다.
-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기능, 목표를 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지도사업은 구조 개선의 촉진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생활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활개선사업도 구조개선사업의 목적인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의 의식주생활, 가정관리,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도 목표의 변경을 검토한다.

-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따라 농촌여성의 새로운 역할이 증대되리라 보는데 그에 비추어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농촌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농촌여성들이 더 만족하고 더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 농촌여성의 유형별 지도가 되어야 한다. 전업농가의 여성, 겸업농가의 여성, 농촌의 비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22만가구에(농촌 20만가구, 도시 2만가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종사여성들이 무급으로 혹은 부업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탈피되어야 하겠다. 130만명의 농업종사여성중 부업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76만명이다.
- 농업노동의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사일이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80% 이상인데 농업노동의 힘들음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계 사용증대를 위한 방안(예: 교육강화)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노동의 편리화, 능률화 등의 작업분담과 농업기술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가주부의 농번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학교급식확대, 가족의 이해와 협조(농업종사여성농의 조기귀가 및 작업배려), 주택개량, 농촌 노인 부양 경감 방안이 마련(탁노소 등)되어야 한다.
-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소득원의 개발과 발굴 및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지역여건에 맞으며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으며 농촌여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소득원이 개발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농촌여성 일감증대를 위한 노력증대가 필요하다. 농촌지도소는 지방정부, 직업 훈련기관, 입주업체와 농촌여성의 농의취업 확대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의 경우 취업희망자 실태파악, 직업훈련알선, 훈련이수자 일감맞기 사업 실행지원, 지역단위 농업 생산활동과의 보완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촌여성의 일감맞기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 여성의 농의취업에 따른 농가생활의 질 저하방지를 위한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 농외취업 여성들의 건강 유지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농번기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킨다. 가사노동과 다른 경제활동의 2중적 부담(예: 농번기 1일 노동시간 12시간 58분)을 줄이기 위하여는 농번기 일꾼에 대하여 식사준비 시간을 절약하는 등 식사준비 시간도 절약하고 세탁기도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한다.
- 농촌의 289만 가구 가운데 39%인 114만 가구에 60세 이상 노인이 있으며 그 중 21만 가구는 노인부부만이, 16만 가구는 노인 단독 가구이다. 이들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대책도 생활개선사업의 주요한 영역이다. 농촌남성노인의 64%와 여성노인의 31%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노인이 갖고있는 소득의 저하, 질병, 심리적 외로움, 부양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농촌여성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농부중(전업농가 주부의 68%, 겸업농가 주부의 70%가 경험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음)을 예방하도록 하고 농약살포시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지도하고(착용율 7%에 불과) 농촌여성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건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에 결혼한 주부의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지도를 생활개선 사업에서 하여야 한다.
- 여성의 농업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농가와 농촌사회에서 더 많으면서도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농가내에서는 영농의사결정(예: 생산, 자금, 판매계획)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증대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여성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농업관계 회의에서도 여성들이 일정비율을 차지할 수 있게 한다.
- 또 일본의 농산어촌 부인의 날과 같이 농촌여성의 날을 정하거나 일본의 부인농업사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농촌여성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증대시켜야 하겠다. 또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여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역할 다양화에 따라 아무리 역할이 많더라도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 생활개선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에 맞추어 일본과 같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군청의 사회과와 농협의 부녀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생활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5. 맺는말

- 농촌여성들이 이제까지 매우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더욱 더 능력을 발휘하도록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때 국제화 시대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본다.
- 수입개방이후 점차 중요하여지는 농업과 농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생활개선사업도 기존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지도대상인 여성과 노인에 대한 신규도입 필요 과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